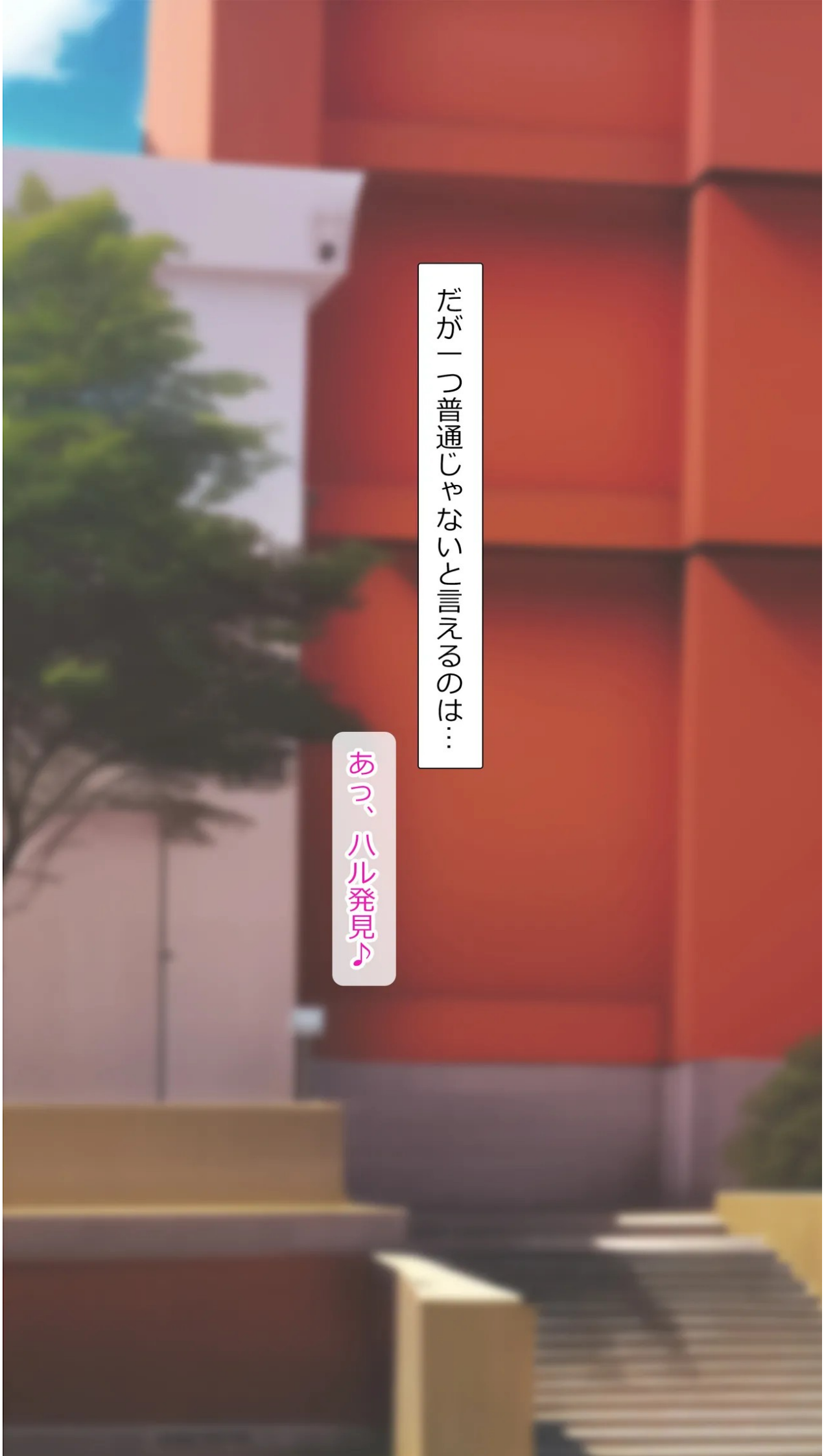

2022-02 SET


俺の名前は「ハル」
大学のベンチに座って
ぼんやりと時間を過ごしている、
どこにでも居る普通の大学生


だが一つ普通じゃないと言えるのは…
あっ、ハル発見♪


何してるの？
普通な俺とは不釣り合いな
「友達」がいるということだ


彼女の名前は「ゆみ」
俺と同じ大学二年生
大学の写真サークルで
会って仲良くなった
外見、スタイル
成績、人間関係
何一つ抜けているところがない
高嶺の花だ

ゆ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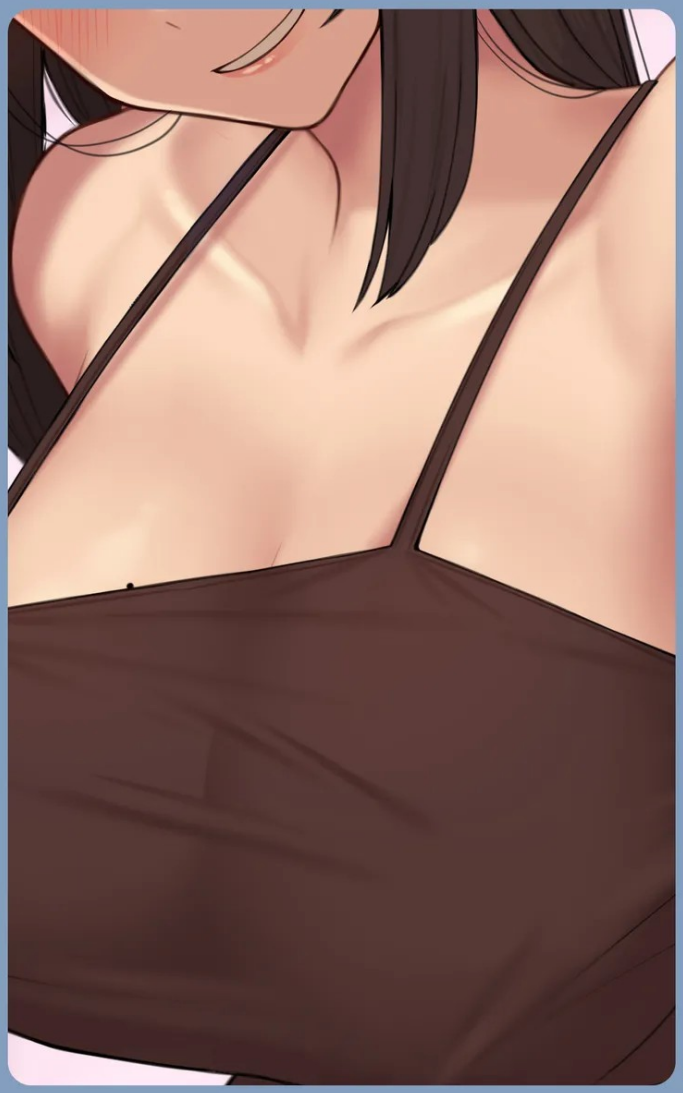
昨日

ゆみ

明日のコーデ♪

20:32

ゆみ



20:32

そんな彼女からいつの頃からか
明日学校に着ていく服の自撮りが
毎夜送られて来るようになった


最初は少し戸惑ったけど
かといって嫌なわけでもなかったのですぐに慣れた


まぁ…次の授業まで時間が少し空いてるから…
ふ～ん…


あのね、私今…
ノーブラだよ？
えっ


勝手に、服の中を想像する
白い上着の中
下着を着ていないワンピース
飛び出した乳首は自己主張をしている


そして想像が妄想になる瞬間


あ、今変な想像してるでしょ～？
俺は現実に引き戻された


あはっ♪顔赤くなってる♪
そ、それは…
冗談だよ冗談♪
ノーブラなわけないでしょ？
彼女はたまにこうやって俺をからかってくる


私、次の講義あるから先に行くね？
…うん
また夜に写真、送ってあげるか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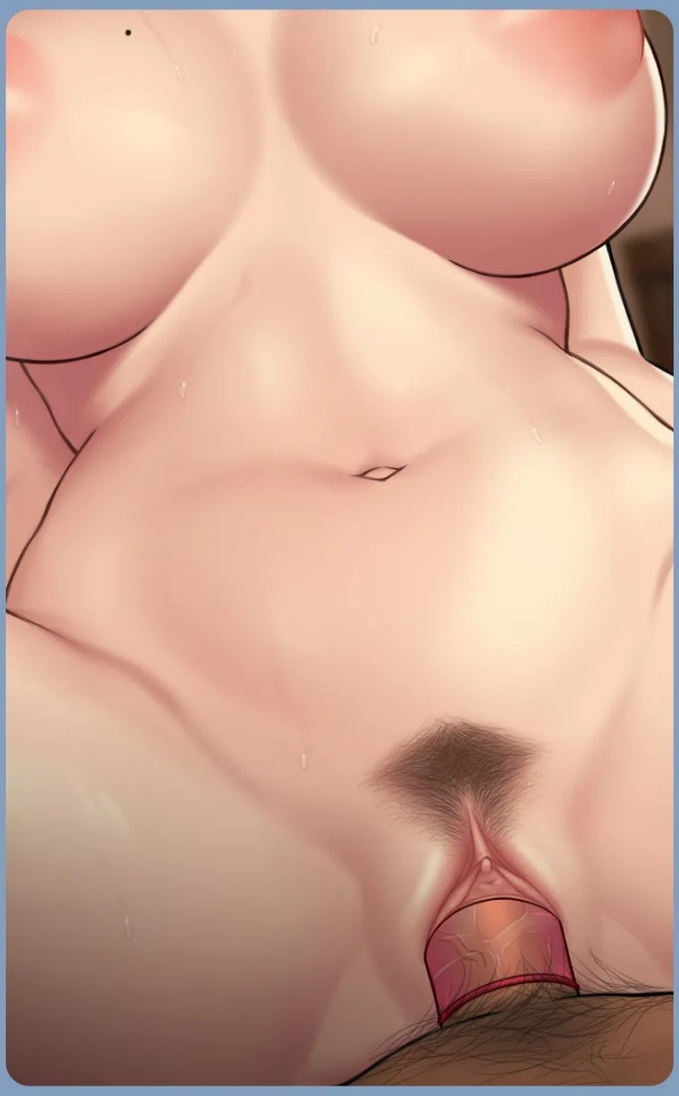

その日の夜
彼女から送られて来た写真は…

ゆみ

今日



ゆ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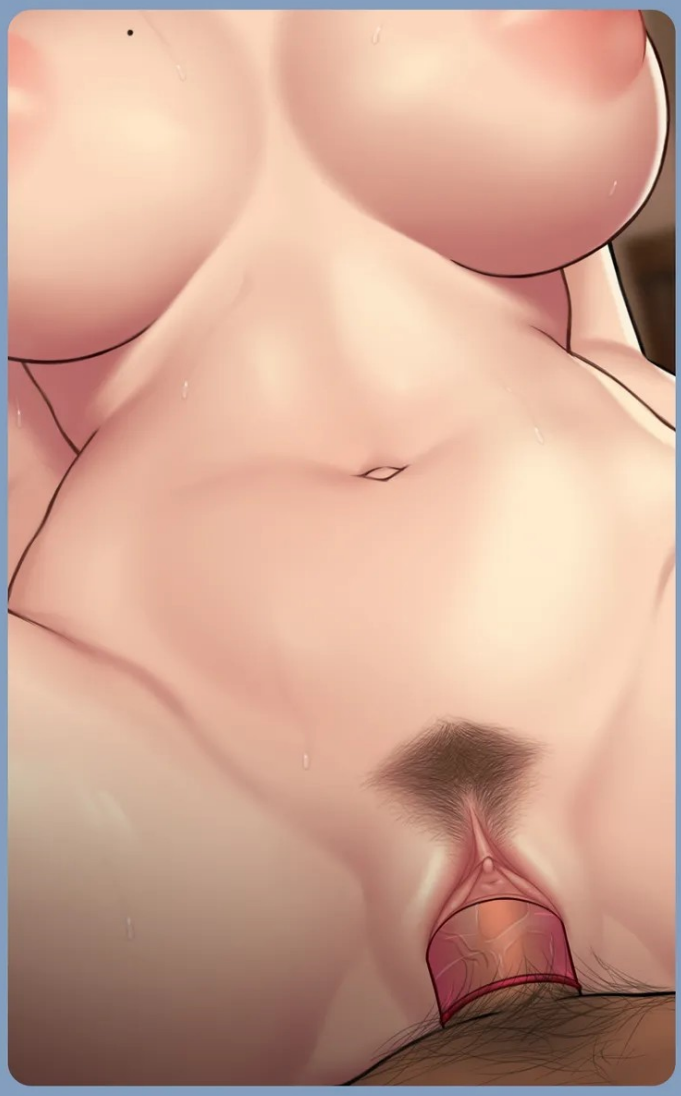
23:41

無修正のエロ画像だった

ゆみ

今日

ゆみ



23:41

え

23: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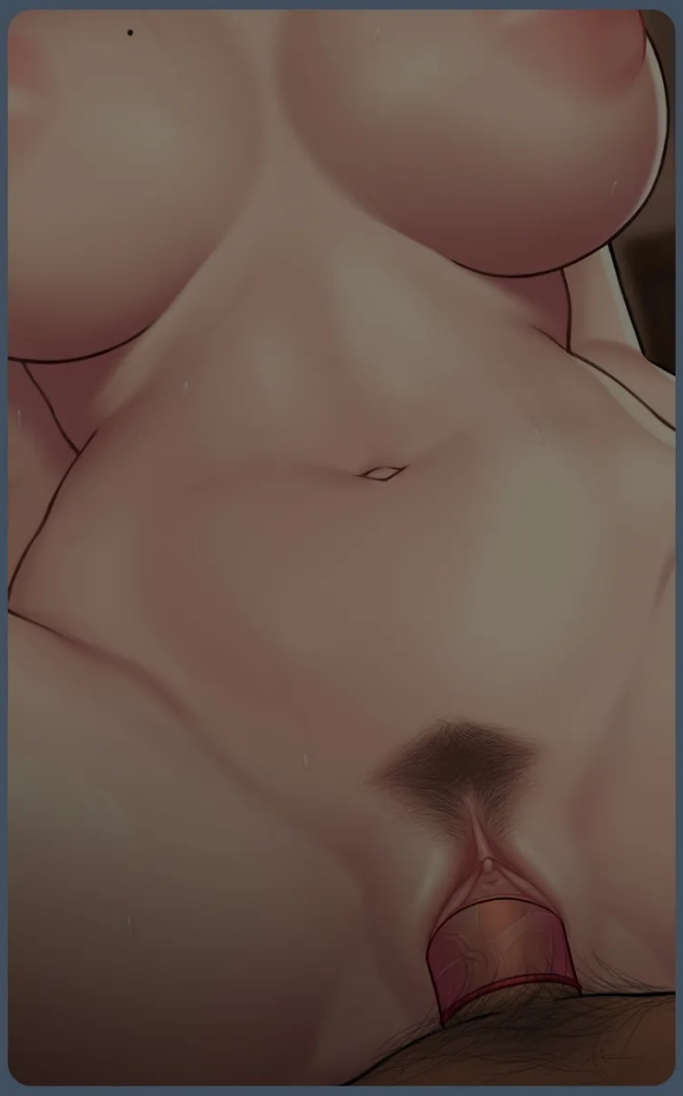
いつもイタズラをよくする彼女だが、

こんな画像を送ってくるとは思わなかった

ゆみ

今日

ゆみ



深く考えず写真を開くと

え

既読
23:42


ほんの少しの間
呼吸が止まっ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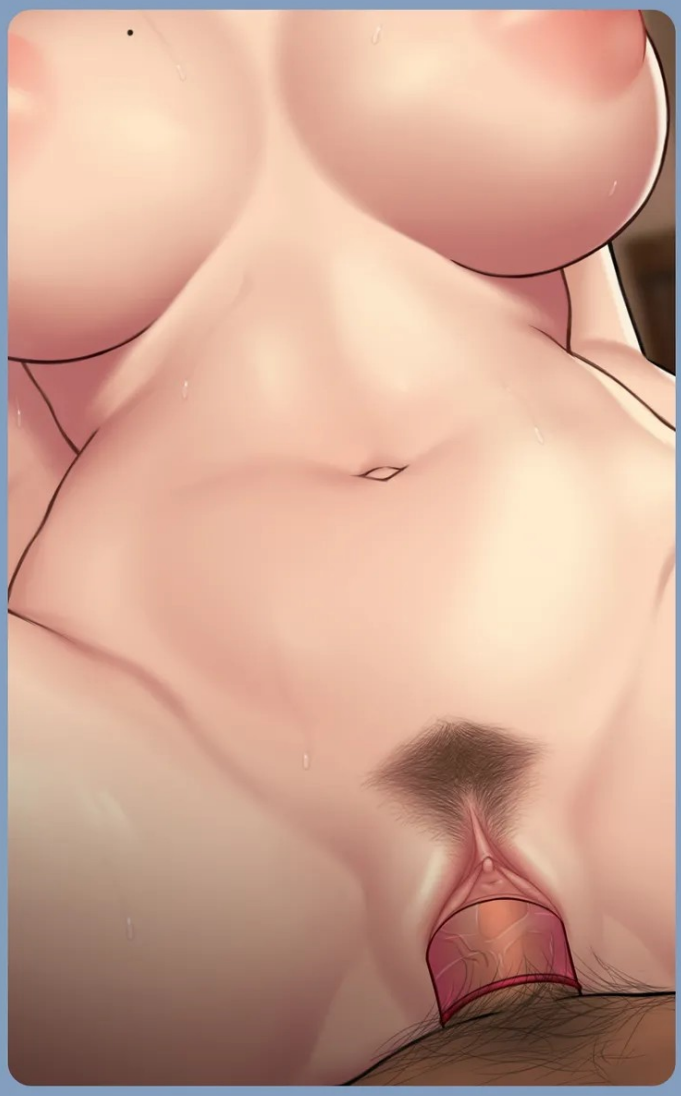

あそこの割れた隙間を
しっかり満たした男のペニス
酔っぱらっているように、
朦朧とした表情をした彼女は
俺の想像ではなく、本当に
誰かと「セックス」をしている

ゆみ

今日



ゆみ



23:41

既読
23:42

え

23:44

ミスで送った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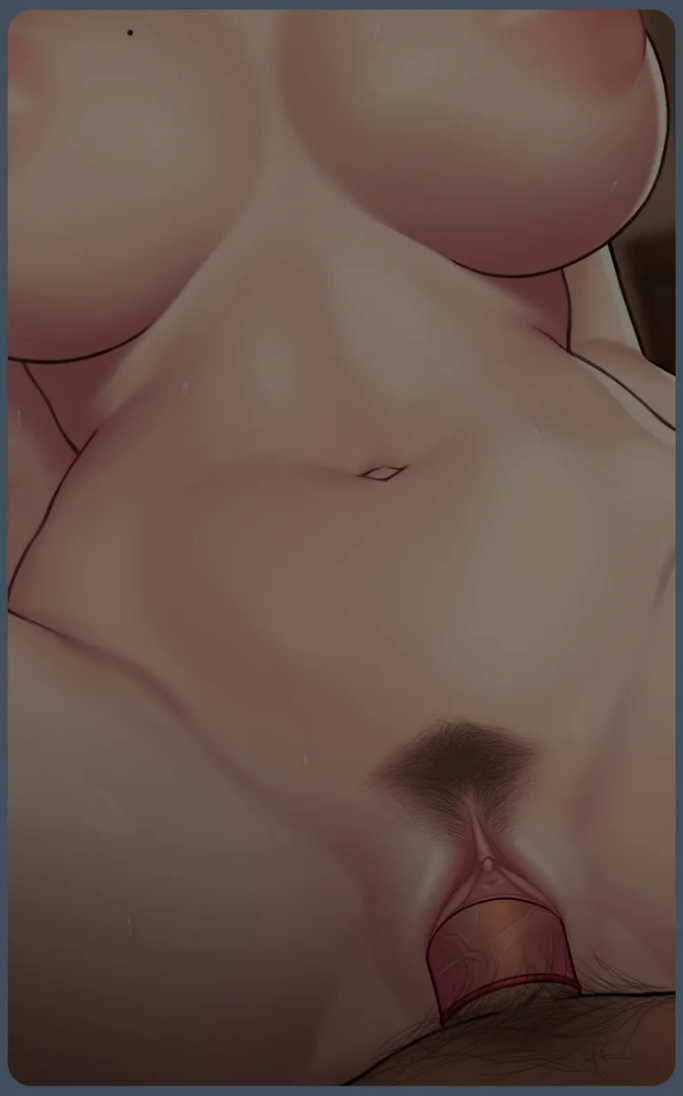
23:44

送ったみたい

ゆみ

今日

ゆみ



彼女には何一つ抜けた所はないと思っていたけど

既読 23:42 え

既読 23:44 ミスで送ったみ

既読 23:44 送ったみたい

ゆみ

今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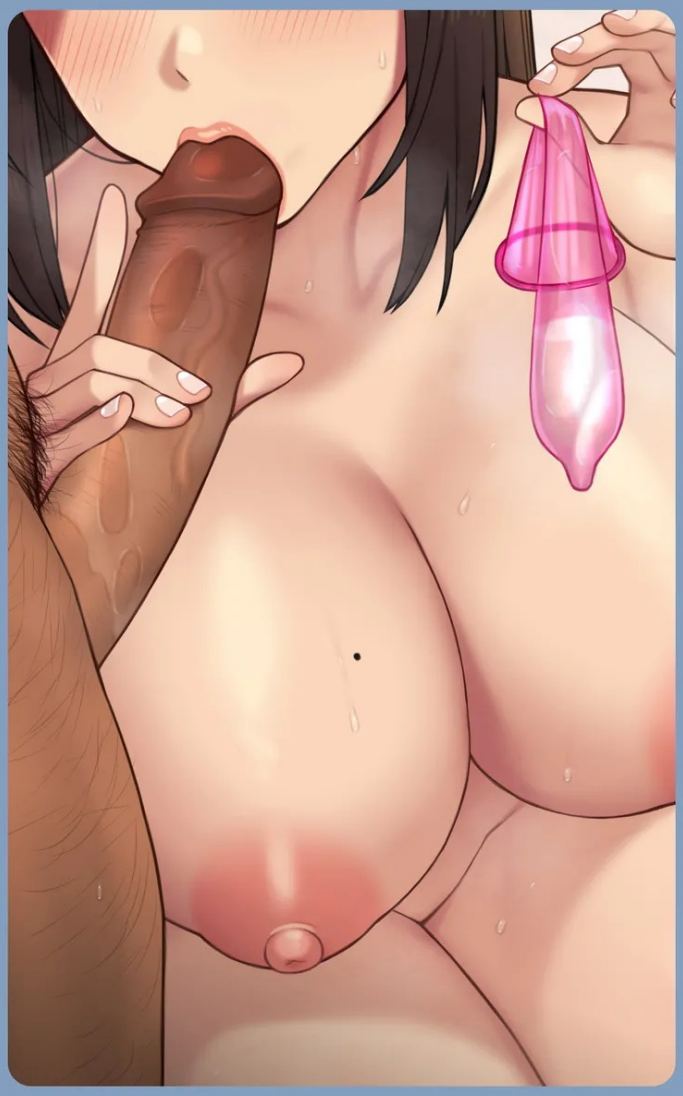
ゆみ

ミスじゃないけど？

23:55



ゆみ



23:55


頭のネジが抜けてる


ハルの妄想#1ー1
おはよう、ハル♪
えっ？服装？
いつもと同じでしょ？
あ、ゴムのこと？
…うん♥トイレで先輩とやって来たんだよ♥
最後は…中出しで♥


ハルの妄想#1－2
激しい運動でもしていたのか、
汗だくの彼女
口の近くには正体不明の
短い毛が付いている
今私、
何していたと思う？


あはっ♥
どう?これ♥
酔った勢いで「生中出し」された記念映像だから♥
これをおかずに一人で精一杯シコってね♥


ビクッ
おほおおおおっ♥♥♥
ビクッ
ドビュッッ♥
ビュー♥


妄想の中の彼女は、
口元に陰毛をつけて
ぢゅぽっ♥ぢゅぽっ♥
じゅっぽっ♥ぢゅる♥
ぢゅぽぽぽっ♥
じゅぞぞぞっ♥
ジュポッ♥
ジュポ♥
尿道に残った精液を全て吸い出すように
先輩のチンポを下品に吸っている

ゆみ

今日



ゆみ

ねえ

22:47



ゆみ

この前送った写真さ

22:47



ゆみ

もしかして保存した？

22:48

既読
22:50

あ

既読
22:50

その…ごめん



ゆみ

別に怒ったりとかしてないよ

22:50



ゆみ

私だけ恥ずかしいの
見せちゃったから

22:51



ゆみ

君のも見せて

22:51

22:51

え？俺のって…

ゆみ

今日



ゆみ

あんたのチンポ見せてよ

22:51

それは…少し準備が

22:52

ゆみ

今日

ゆみ

あんたのチンポ見せてよ

22:51

既読
22:52

それは…少し準備が

ゆみ



22:54

ゆみ

これでいい？

22:54

ゆみ

今日

ゆみ

あんたのチンポ見せてよ

22: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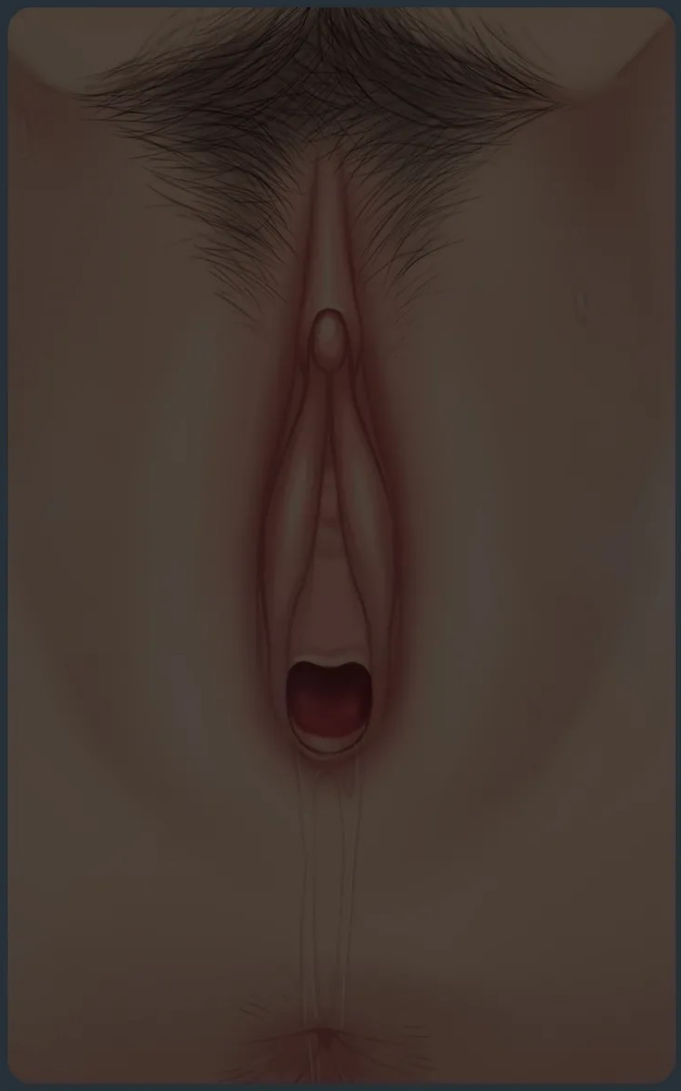
既読
22:52

それは…少し

が

突然貼られた写真

ゆみ



22:54

その日以後、彼女が送る写真は変わり始め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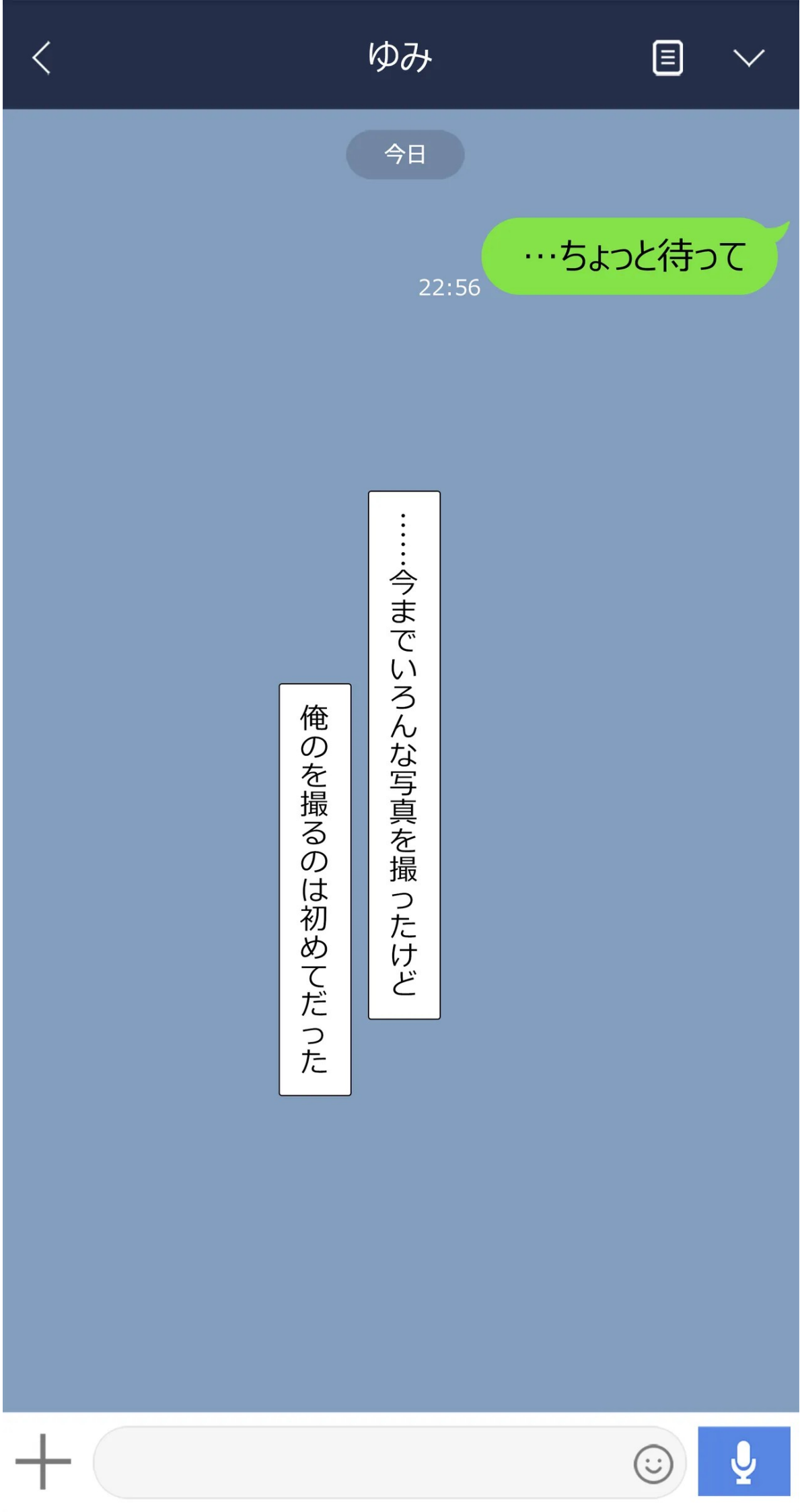
ゆみ

これでいい？

22:54


「男を知っている」穴
オナニーでもしていたのか、
汗と愛液で濡れている


俺の想像も過激になり、
彼女の穴から溢れる
精液を妄想してしまう


ゆみ
今日
…ちょっと待って
22:56
……今までいろんな写真を撮ったけど
俺のを撮るのは初めてだった

ゆみ

今日

…ちょっと待って

既読
22:56



22:57

それと…

ゆみ

今日

…ちょっと待って

既読
22:56



既読
22:57

ゆみ

あっ、包茎チンポ

22:57

ゆみ

すっごい勃起してるね♥

22:57

…色んな意味で恥ずかしい

ゆみ

今日



ゆみ

私、何していたと思う？

22:58

既読
22:58

ええと…

既読
22:59

オナニー…？



ゆみ

プップー

23:00

2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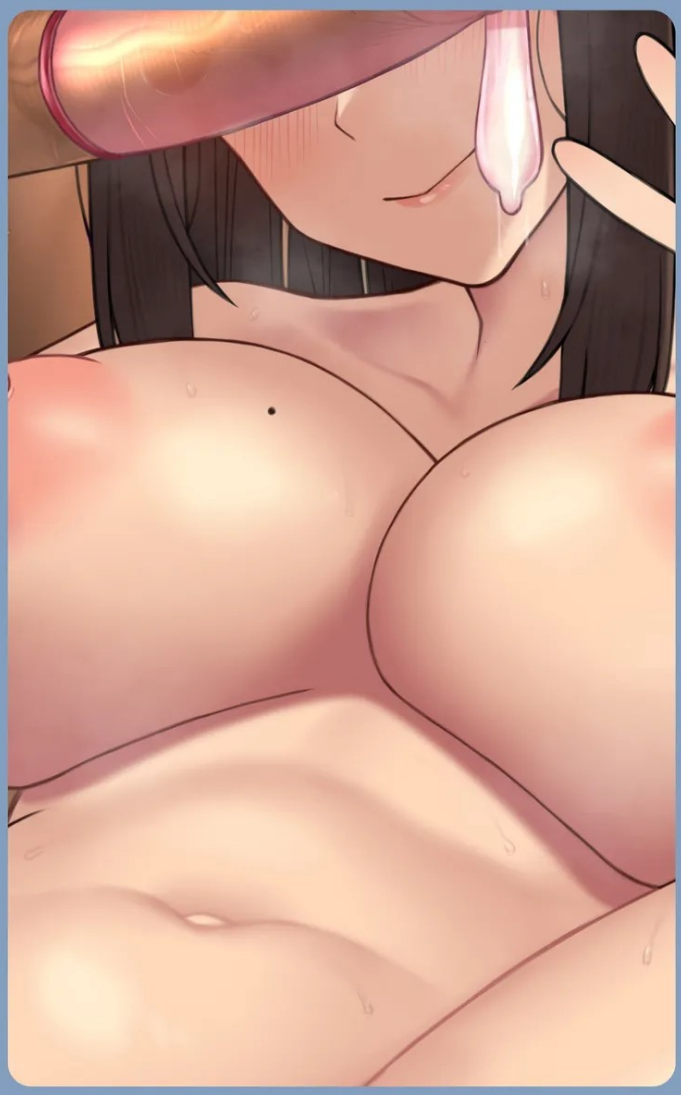
じゃあ…もしかして…

しばしば分り難い彼女

ゆみ

今日

ゆみ



23:01

ゆ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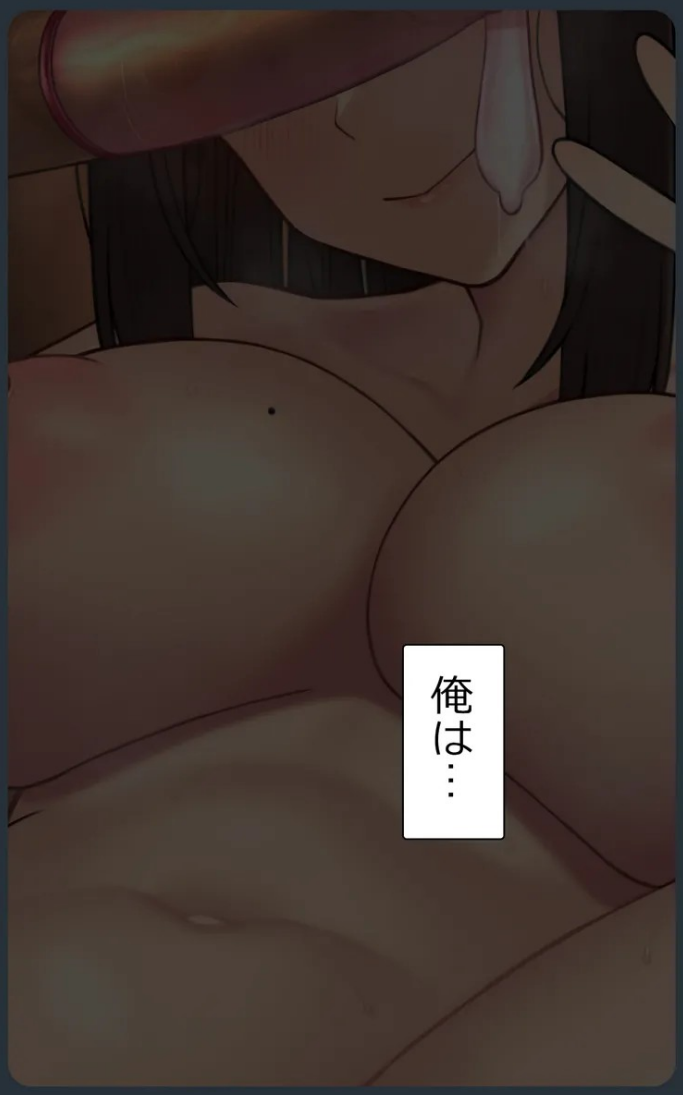
今夜のおかず♥

23:01

ゆみ

今日

ゆみ



23:01

ゆみ

今夜のおかず♥

23:01


彼女のことが好きになっている

ハルの妄想#2ー1




先輩の
ハルの
(子宮に
届かない♪)


ハルの妄想#2ー3
あんたとは格が違う、太くて
素敵なチンポに中出しされた証拠♥
ちっちゃな包茎チンポは…
私のマンコに入れる機会なんてないか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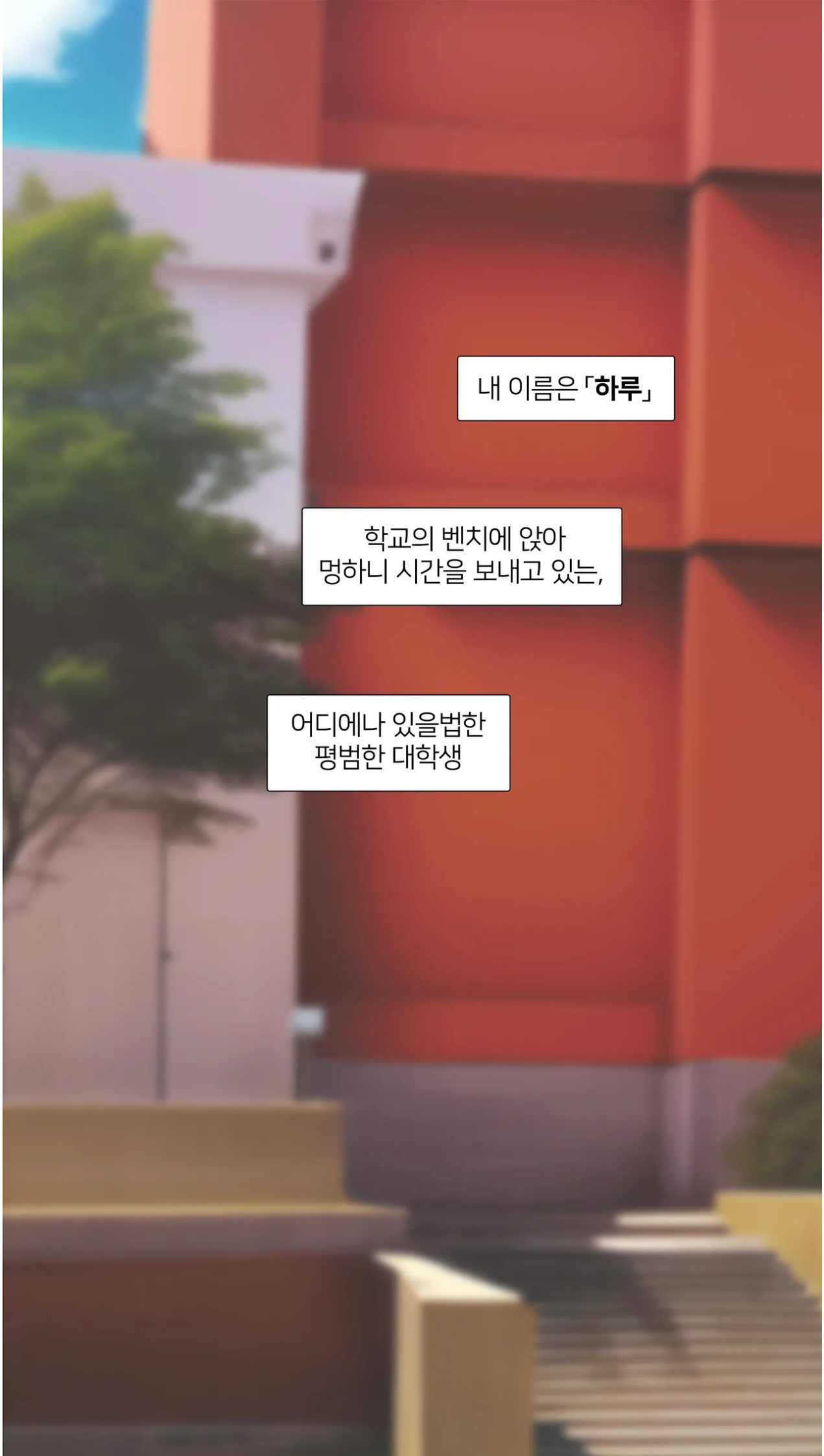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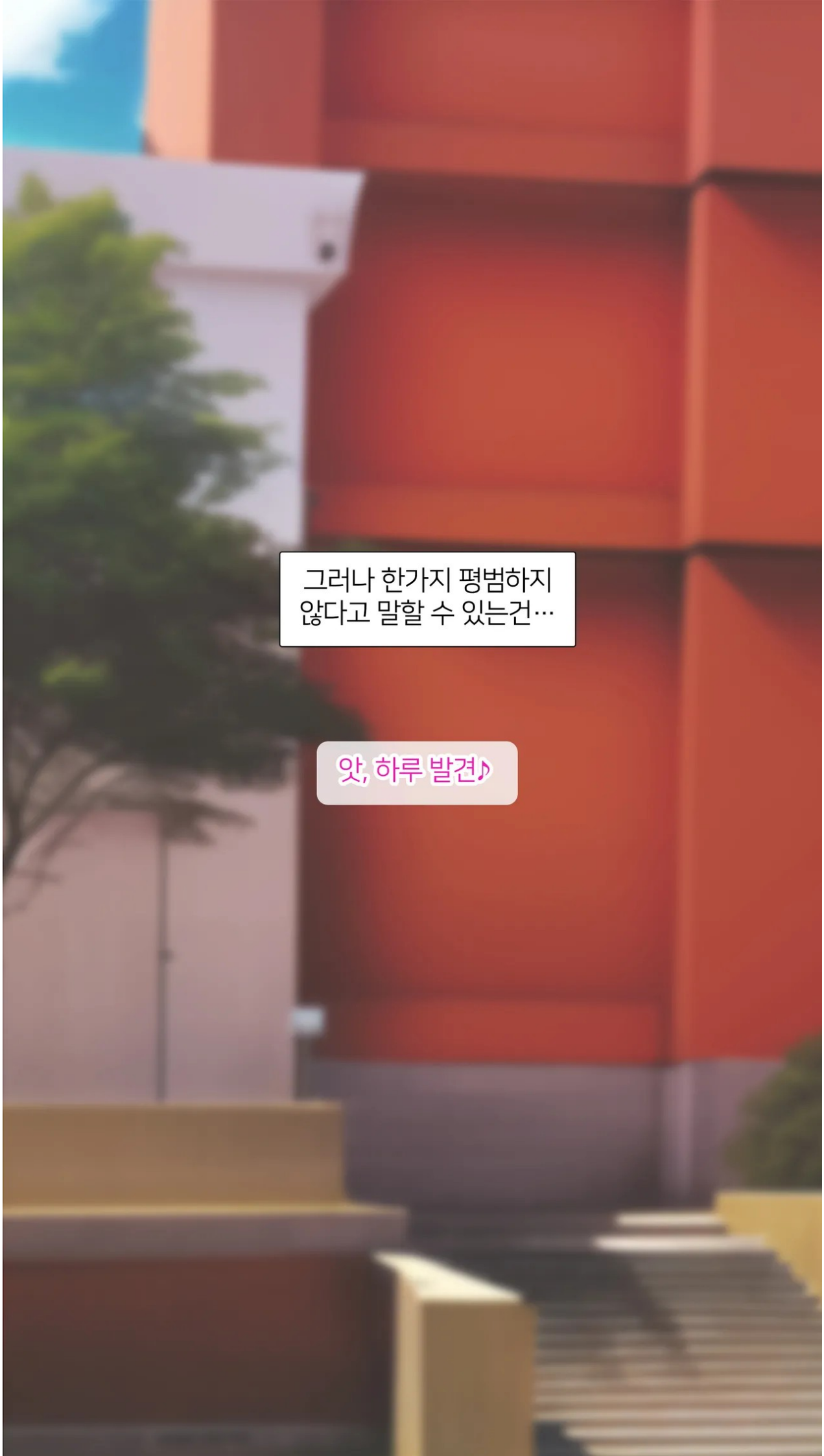









내 이름은「하루」
학교의 벤치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내고 있는,
어디에나 있을법한
평범한 대학생


그러나 한가지 평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건…
앗, 하루 발견♪


뭐하고 있어?
평범한 나와는
어울리지 않는
「친구」가
있다는것이다


그녀의 이름은「유미」
나와 같은 대학 2학년
대학의
사진 동아리에서
만나 친해졌다
외모.스타일
성격.인간관계
무엇 하나 빠진것이
보이지 않는 환상의 존재다

유미

어제



유미

내일 코디♪

20:32



유미



20: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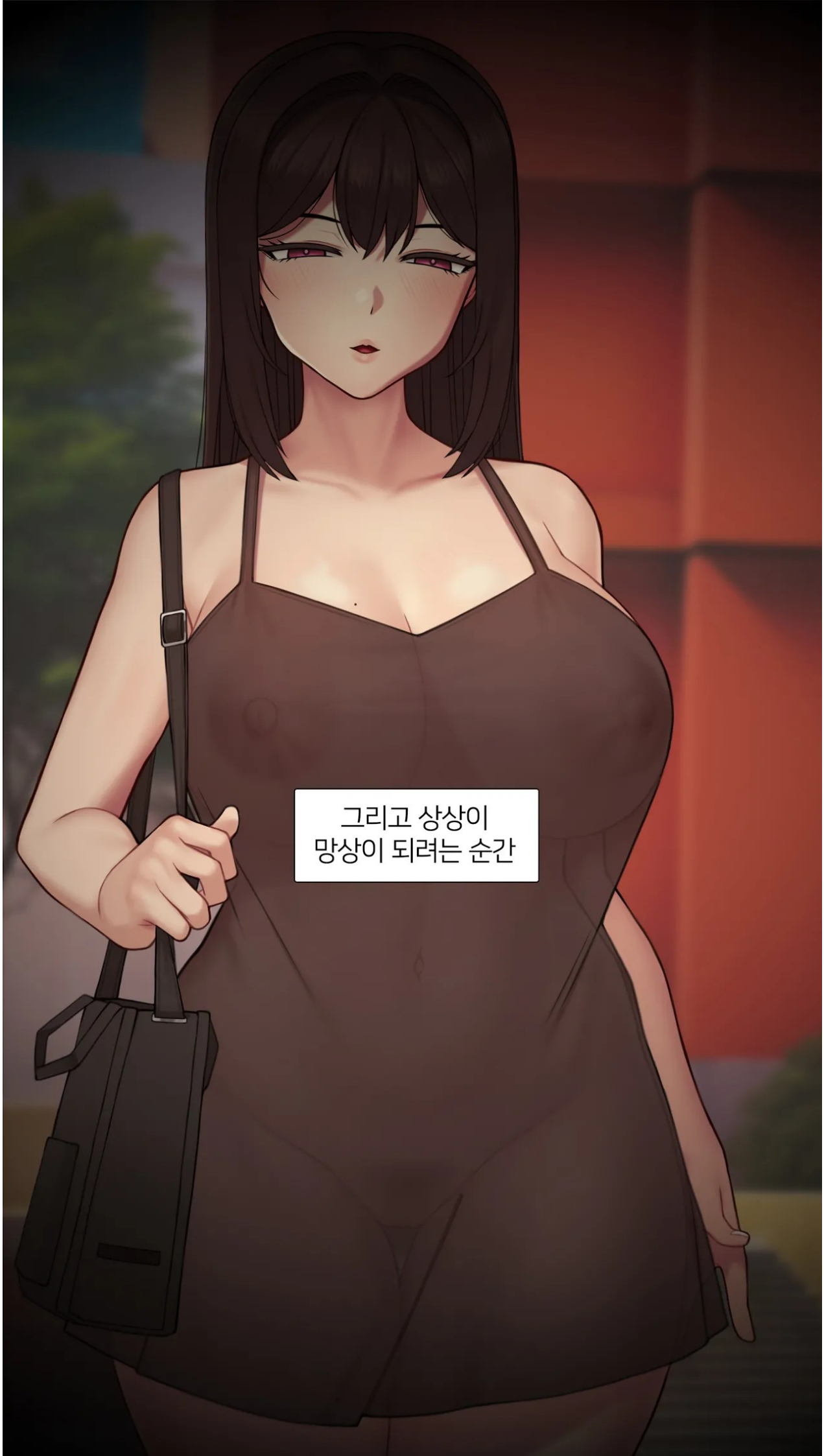
그런 그녀에게 언제부터인가
내일 학교에 입고갈 옷의 셀카를
매일 밤 받게 되었다


처음에는 조금
당황했지만
그렇다고 싫은것도 아니었기에
금새 익숙해졌다


뭐…다음 수업까지
시간이 좀 비어서…
흐~응…


있지, 지금 나
노브라다?
엣


멋대로, 그녀의
옷안을 상상한다
흰 블라우스의 안
속옷을 입고
있지 않은 원피스
튀어나온 유두는
자기주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상상이
망상이 되려는 순간


아, 지금 이상한 상상하고 있지~?
나는 현실로 돌아왔다


아핫♪
얼굴 빨개졌어♪
그, 그게…
농담이야 농담♪
노브라일리 없잖아?
그녀는 종종
이렇게 날 놀려대온다


난 다음 강의 있으니까
먼저 가볼게?
…응
또 밤에 사진
보내 줄테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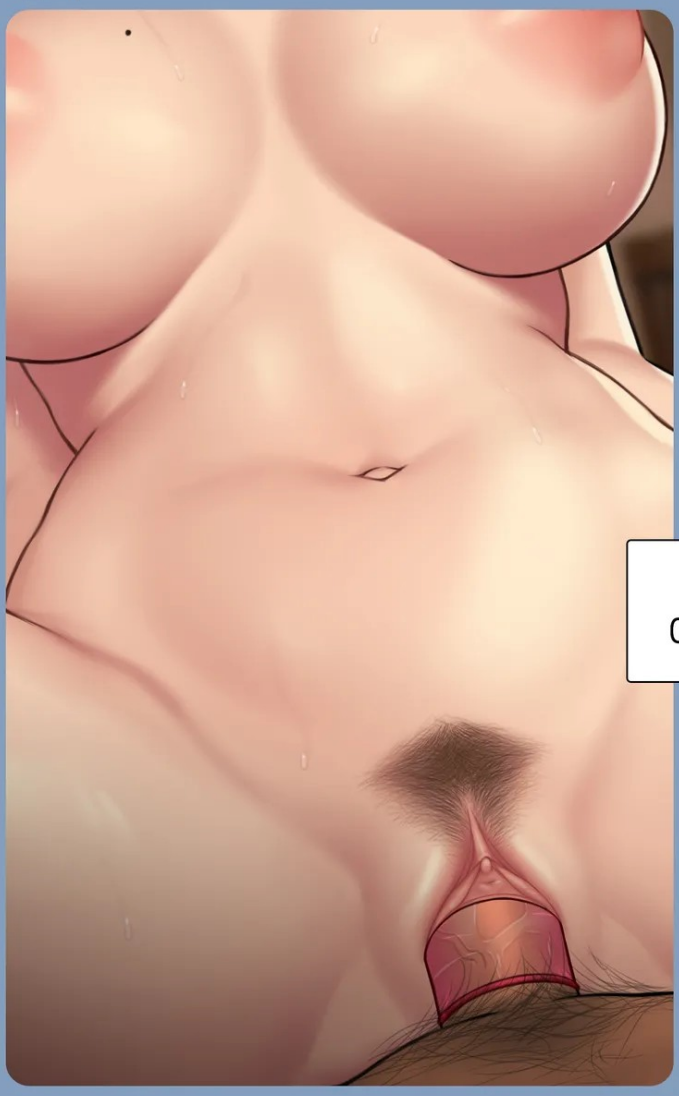

그날 밤
그녀에게 받은 사진은…

유미

오늘



유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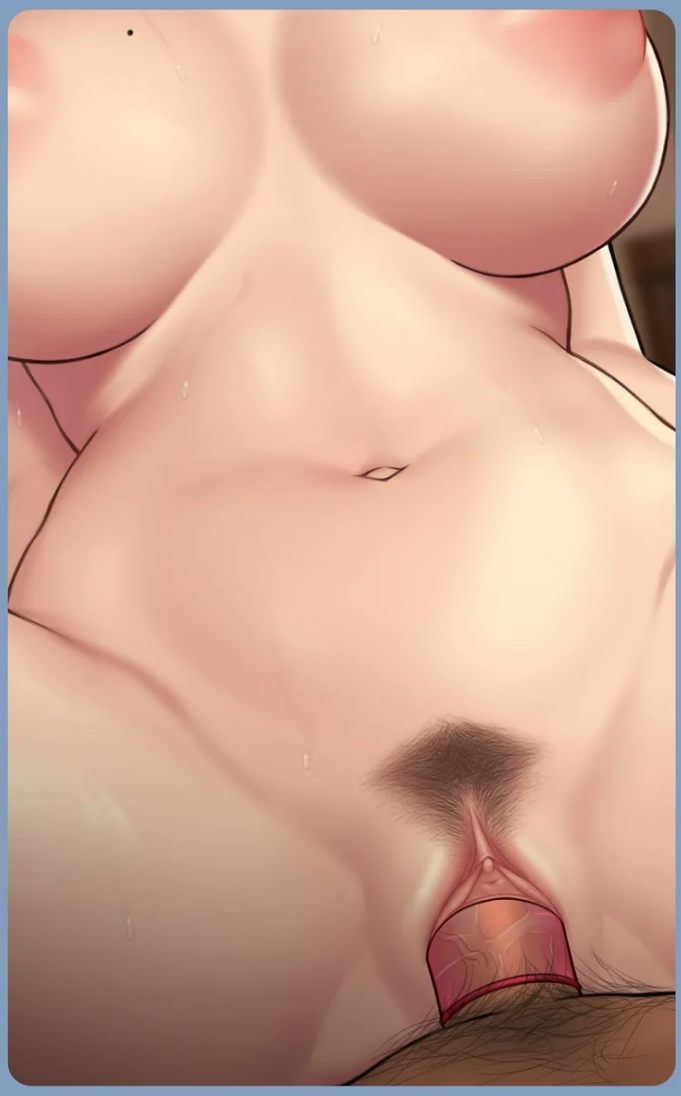
무수정의
에로 사진이었다

23:41

유미

오늘

유미



23:41

에

23: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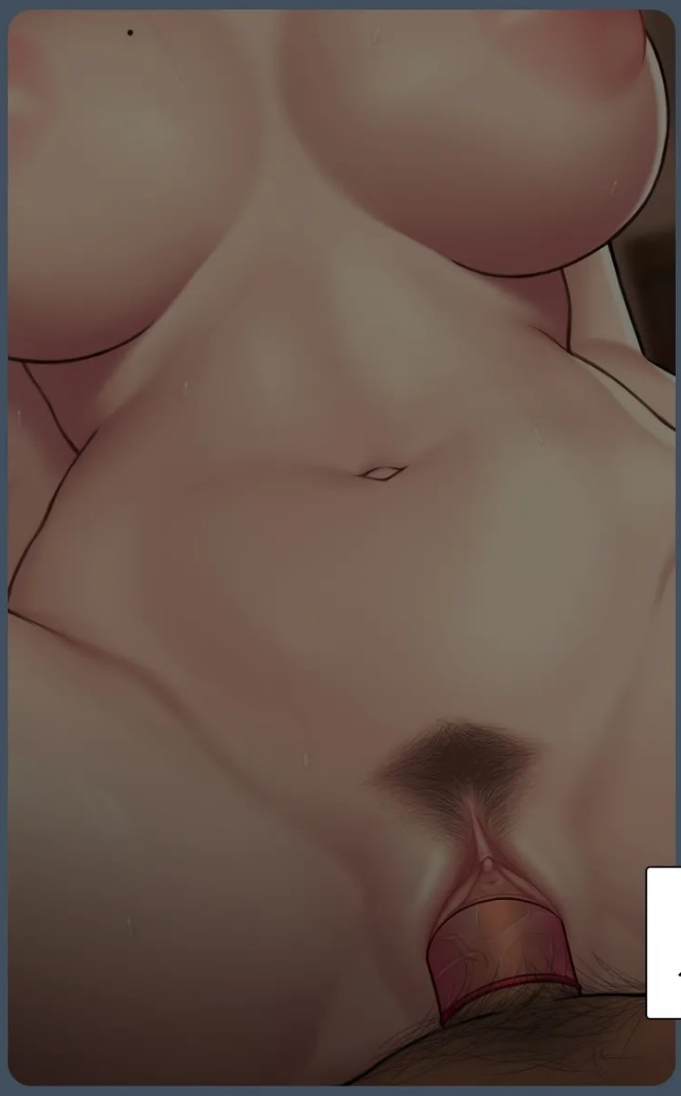
평소 장난을
잘 치는 그녀였지만,

이런 사진을 보낼줄은
생각치도 못했다

유미

오늘

유미



별 생각없이
사진을 열어보면

23:41

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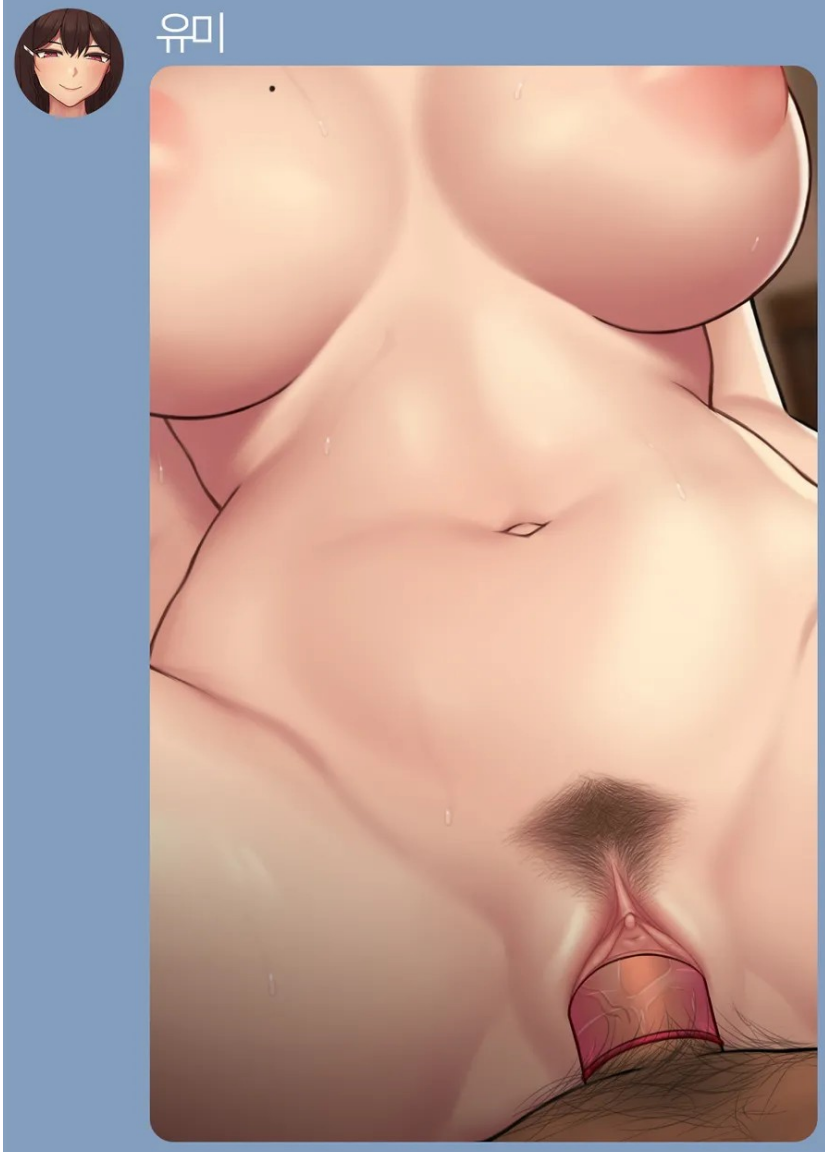
읽음
23:42


아주 잠깐동안
호흡이 멈췄다


하체의 갈라진 부분을
확실히 채운 남자의 페니스
취하기라도 한듯, 몽롱한
표정을 짓고 있는 그녀는
내 상상이 아닌,
정말로 누군가와
「섹스」를 하고 있다

유미

오늘



유미

23:41

읽음
23:42

에

23:44

실수로 보낸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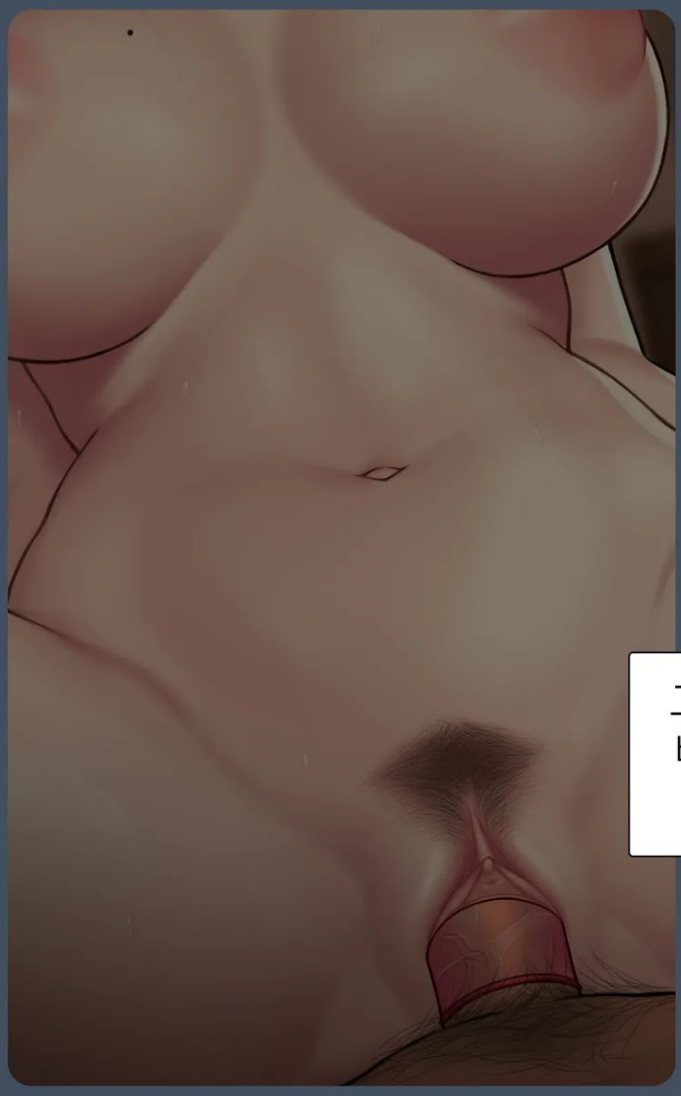
23:44

보낸거 같아

유미

오늘

유미



그녀는 무엇 하나
빠진것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23:41

읽음
23:42
에

읽음
23:44
실수로 보낸ㄱ

읽음
23:44
보낸거 같아

유미

오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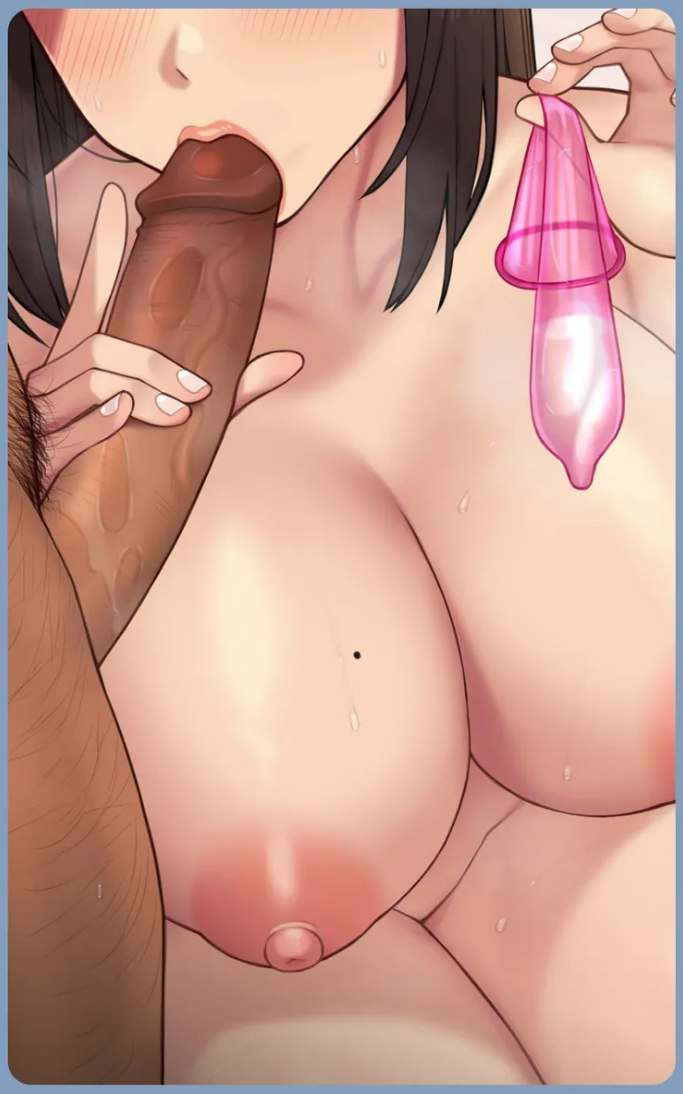
유미

실수 아닌데?

23:55



유미



23:55


머리에 나사가
빠져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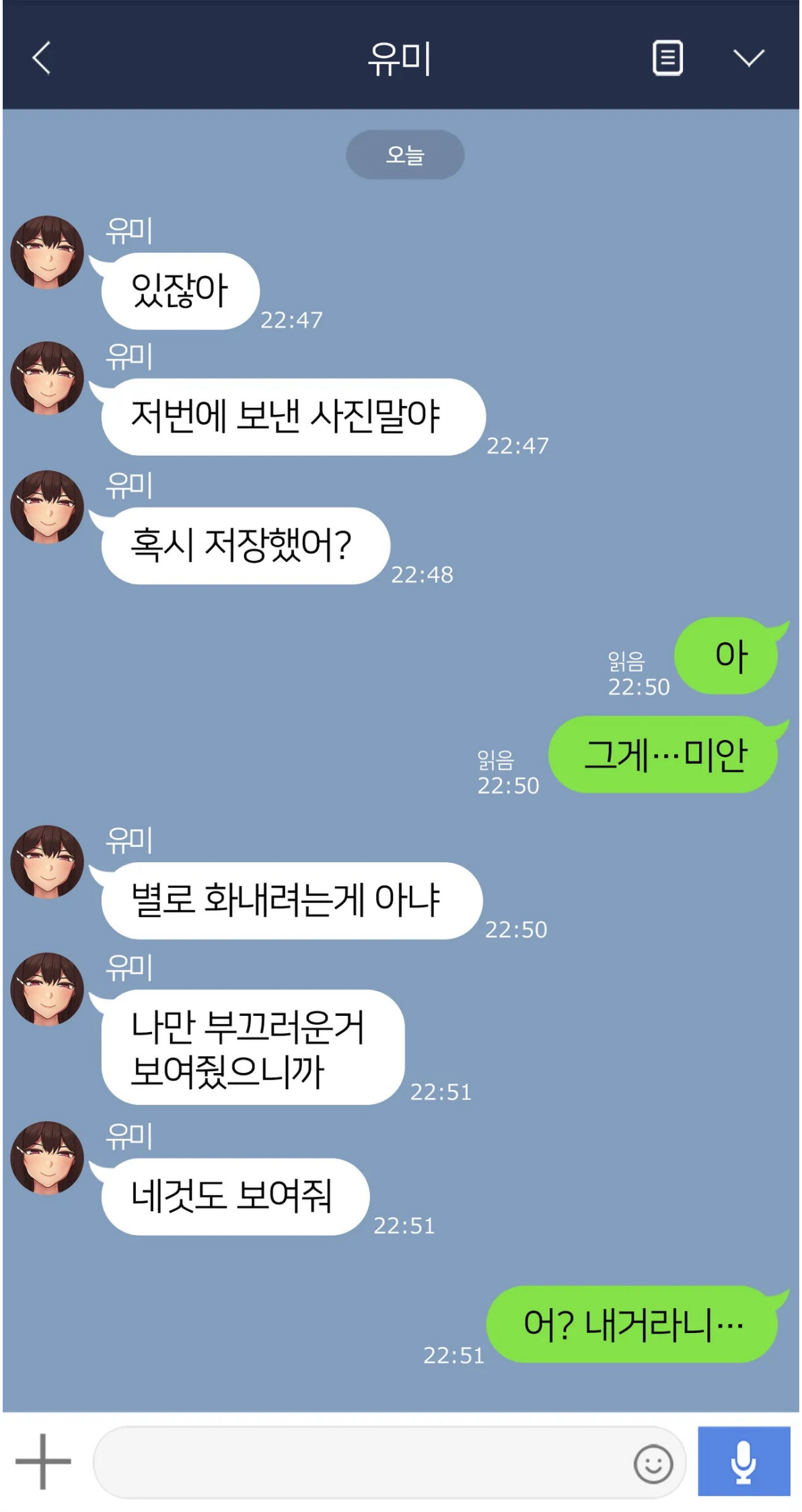

하루의 망상#1—1
안녕, 하루♪
엣? 복장?
평소대로잖아?
아, 콘돔말야?
…응♥
화장실에서 선배랑
하고 왔어♥
마지막은…
질싸로♥


하루의 망상#1—2
격한 운동이라도 했는지,
땀을 잔뜩 흘리고 있는 그녀
입 근처에는 정체모를
짧은 털이 묻어있다
지금 나,
뭐하고 있었다고
생각해?


하루의 망상#1—3
아핫♥
어때? 이거♥
취해버려서
「노콘질싸」 당한
기념 영상이니까♥
이거 반찬으로 쓰면서
혼자 열심히 딸쳐♥


움찔
움찔
오호오오오옷♥♥♥
뷰릇♥
뷰릇♥


하루의 망상#1—4
망상안의 그녀는,
입가에 음모를 뭍히고
쥬포♥쥬포♥
쥬포♥츄릇♥
쥬보보봇♥
요도에 남은 정액을
모두 빨아내려는듯이 선배의
자지를 천박하게 빨고있다


유미
오늘
유미
있잖아
22:47
유미
저번에 보낸 사진말야
22:47
유미
혹시 저장했어?
22:48
아
읽음
22:50
그게…미안
읽음
22:50
유미
별로 화내려는게 아냐
22:50
유미
나만 부끄러운거
보여줬으니까
22:51
유미
네것도 보여줘
22:51
어? 내거라니…
22:51

유미

오늘



유미

니 자지 보여달라고

22:51

그건…조금 준비가

22:52

유미

오늘

유미

니 자지 보여달라고

읽음
22:52

그건…조금 준비가

유미



22:54

유미

이걸로 됐어?

22:54

유미

오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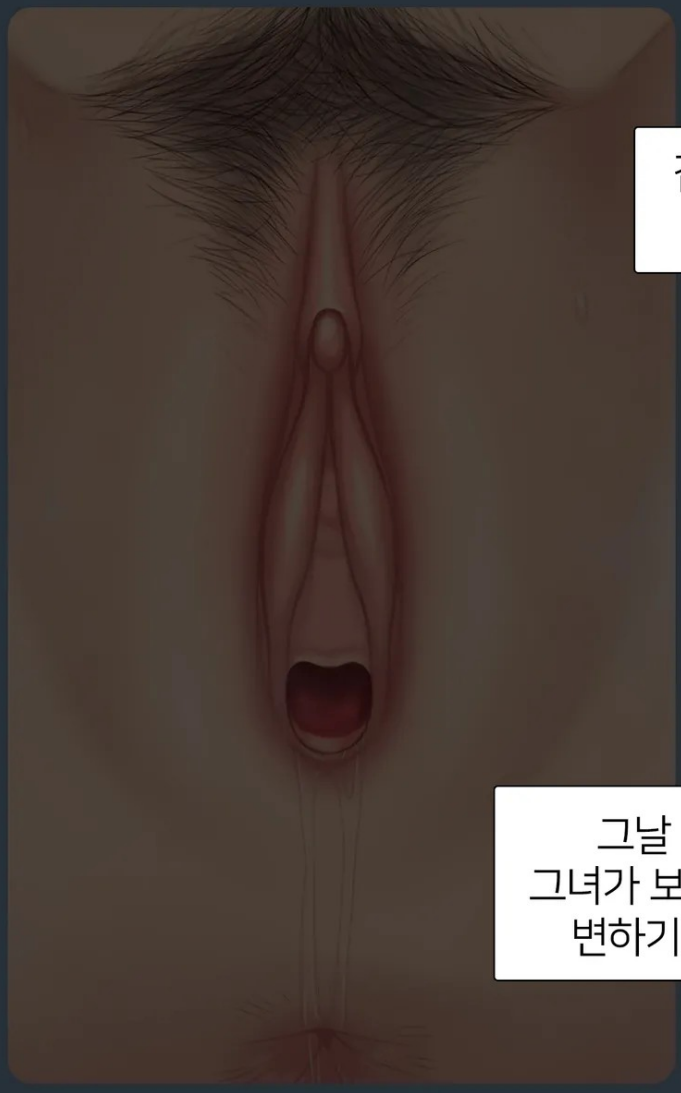
유미

니 자지 보여달라고

그건…조금 준비가

읽음
22:52

유미



갑자기 보내져온
노골적인 사진

그날 이후로,
그녀가 보내는 사진은
변하기 시작했다

22: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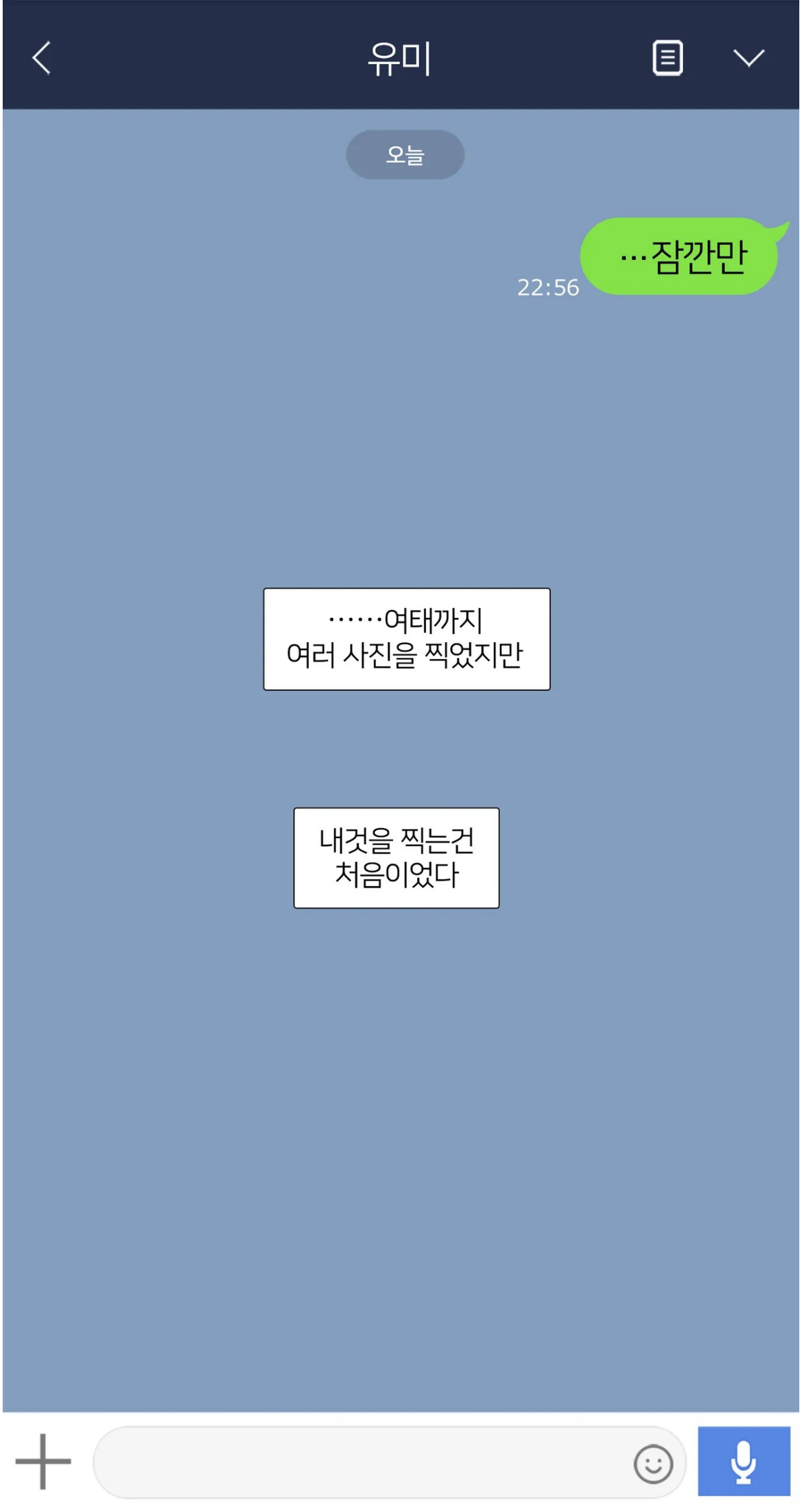
유미

이걸로 됐어?

22:54


「남자를 알고 있는」
구멍
자위라도 하고 있던것인지,
땀과 애액으로 젖어있다


내 상상도
과격 해지고,
그녀의 구멍에서
흘러내리는 정액을
망상 해버린다


유미
오늘
…잠깐만
22:56
……여태까지
여러 사진을 찍었지만
내것을 찍는건
처음이었다